

완도서 세계 생태수산도시 회의 열린다

23~26일 영국 등 10개국 슬로시티 시장 참석

바다자원 미래 식량 활용 제시... 완도 선언문 채택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10개국 슬로시티 시장들이 완도에 모여 바다생태 환경 보전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완도군은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오는 23~26일 국내외 생태수산도시 시장과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장보고기념관과 청산도에서 세계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시장회의는 국제 슬로시티연맹 회원 도시 가운데 바다생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슬로시티 시장들이 모여 21세기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행정, 문화,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10개국 도시시장과 관계자 외에도 세계 슬로시티연맹 회장과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장회의는 완도수산물 특산물 슬로 우물터 복원 기념식, 시장포럼, '완도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육지식량의 부족, 오염과 바다생물 자원의 미래식량자원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미래의 식량보고 등 5가지 회의주제를 선정하고, 지구가속 공동체, 수변마을,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산도시 연차회의 개최 등 '완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기초연설을 통해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수산 도시 추진방향과 바다가꾸기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생태수산 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을 높여 나가며 국제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장이 전시관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1일 개장한 해조류 박람회장 찾은 인파는 개장 10일째인 20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박람회조직위 제공>

'완도선언문' 채택과 지속적인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군은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통해 미래 인류의 대체 식량자원으로서의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조류 산업의 고부가가치

를 촉진하며 해조류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양식어장 정화 및 재배치 사업 등 바다생태계를 복원하고 연근해 어선 감축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양식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전

개하고, '바다청소의 날' 운영과 폐유 자율 수거 운동 등 어민 의식 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장 10일째를 맞은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개장 10일 만에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韓-佛, 정원디자이너 파견 교차정원 조성

순천시-쇼몽 가든페스티벌 MOU 체결

'순천만 정원'이 지난 20일 개장했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프랑스 쇼몽 국제 가든페스티벌 조직위 총 책임자인 샤펀 프랑수아 정원에서 정원문화 국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는 이번 MOU 체결로 상호 세계적 수준의 정원디자이너 파견을 통한 교차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해설가회의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전 세계 50개국 450여 명이 참여한 세계 해설가 회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숲, 문화, 환경, 자연, 관광 등 각국의 해설관련 기법을 공유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열망하는 가교 역할을 다짐하게 된다.

한편 제1회 입장객의 영예는 순천만 정원 동문에 대거했다가 게이트가 열릴 때 동시에 입장한 박명훈(31·경남 거제) 부부가 차지했다.

/순천=예정림·김은희기자 jyj@

벼 키다리병 등 병해충 사전 예방

보성농기센터, 벼종자 소독·적량파종 연시회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천구)는 맞춤형 최고급 쌀 생산단지와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키다리병·벼 잎선충·도열병 등 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노동면 용호리 공동 육묘장에서 농민과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벼 종자 소독 및 적량파종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농사의 첫

단계인 소금물 가리기 및 벼씨소독 방법, 올바른 벼 육묘용 상토 사용법, 적량파종 등을 중점 교육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의 무농약 규정에 의한 일반 소독약제 사용 대체 방법으로 기존의 온탕소독과 새로 개발된 석회유황 소독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벼농사에서 큰 문제인 키다리병의 완벽한 방제 방법을 교육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감자들이 잘 자라거라"

보성군 회천면 들녘에서 농민들이 감자 새순이 자랄 수 있도록 비닐을 뚫어 주고 있다. 보성지역에서는 회천면과 득량면, 용치면 900여 농가가 830ha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해남보건소, 549회 검진

해남군 보건소가 관내 513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는 의료서비스 지원팀을 구성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경로당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4회씩 '찾아가는 경로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달까지 농간기를 활용해 모두 549회 경로당을 찾아 1만980명에게 혈압·혈당 등 기초 검진을 실시했다.

또 봄철 감염되기 쉬운 살인진드기 예방과 각종 보건교육, 건강 상담, 치매검사 등 포괄적인 노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과 허약아인, 관절통 노인과 같은 유증상자들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28일 여수 충민사서 이충무공 탄신제

임진왜란의 명장 이충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제469주년 이충무공 탄신제'가 오는 28일 여수 덕충동 충민사에서 봉행된다.

탄신제는 시립국악단의 취타연주와 피리·해금·대금·북장구 등으로 구성된 삼현육각 연주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참여 한마당 행사로 어린이 사생대회와 공도체험, 솟대만들기, 이미지 포토존,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여수 충민사는 국가사적 제381호이자 최초의 사액사당으로 이충신 장군이 전사한 3년 뒤인 1601년(선조 34년) 왕명으로 세워졌다. 이는 통영 충렬사보다 62년, 아산 현충사보다 103년 빠른 것이다.

이후 1870년(고종 7년) 서원철폐 때 훼손됐다가 1873년 중수됐고, 일제강점기에 다시 철거됐다가 1947년 지방유림에 의해 제자리에 재건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험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험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과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 2008년(27), 2010년(37), 2012년(47), 2014년(57)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령동 율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